

## Session 13 예수님께서 기도 를 가르치심 (마 6:9-13)

### (Being Taught to Pray by Jesus)

#### I. 모델이 되는 기도

- A.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삶을 사셨고, 가장 위대한 가르침 사역을 하신 분으로부터 기도에 대해 배우는 것은 너무도 큰 선물이다. 마태복음 6:9-13 절은 성경에서 가장 친숙한 구절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안에 깊이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이 영광스런 내용에 대해 피상적으로 알고 지나쳐버리게 된다.
- B.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을 주셨다 (마 6:9-13). 이는 성경 전체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모든 근본적인 기초를 다루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강하게 자라나기 위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 6:9)*

- C. 예수님께서서는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할, 6 가지 간구를 말씀하셨다. 처음 3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분의 이름, 나라, 뜻), 그 다음 3 가지는 인간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육신적, 관계적, 영적).

#### II.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A.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강한 초점을 두며 시작된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강력한 기도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 근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올바르게 보는 관점이다. A. W. 토저는 하나님에 대한 천한 관점은 모든 세대 가운데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왔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떠올리기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져야 한다.

*9...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 6:9)*

- B. 예수님의 때에,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초월적인 창조자와 왕으로 여겼다. 그들은 그분의 위대한 권능 앞에서 떨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됨을 가르치셨다.
- C.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한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생각, 즉 그분의 권능과 인격의 부분을 결합하셨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하늘의 권능과 결합하셨으며, 그분의 초월성을 그분의 부드러움과 결합하셨으며,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을 지극히 높임 받으시는 그분과 결합하셨다.
- D. 그분은 우리와의 깊은 동역의 관계를 갈망하시는 아버지이시며, 이를 통해 우리를 훈련(훈계)하시고, 공급하시며, 보호하시며, 부드럽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 안에 있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의 성품의 중심에는 아버지 되심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심에

있어서의 가장 높은 이상의 충만함을 보여주신다. C. S. 루이스는 하나님을 “인격을 넘어서는(beyond personality)” 분으로 묘사했다.

E.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너무도 친절하시며, 동시에 그분의 위엄으로 인해 두려운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마음이 부드러우신 것에 대한 큰 확신과 경애하는 사랑, 겸손과 전심을 다한 순종을 가지고 그분께로 나아가야 한다.

F. **우리:**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기도의 간구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실재로 인해 다듬어진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도 전체의 몸을 위한 포괄적인 기도 또한 해야 한다.

G. 계시록 4 장은 아버지의 하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위대한 구절들 중의 하나이다. 나는 이 부분을 4 개 부분으로 나누며, 각각은 3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12 가지의 부분들은 많은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1.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며, 느껴지며, 행동하시는지 (4:3)
2.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 보좌에 앉았으며,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는 교회 (4:4)
3. 하나님의 권능의 아름다움: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를 통해 드러남 (4:5a)
4.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 등불의 하나님의 불, 생물, 그리고 유리 바다 (4:5b-7; 15:2)

*2...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 3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4 또 보좌에 둘러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5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쉰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6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 8...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 (계 4:2-8)*

H.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안에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배경을 깔아두셨다. 어떤 이들은 그분의 하늘의 영광만을 주목하며, 아버지로서의 그분의 깊은 사랑의 성품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엄 있는 분으로 소개하지만,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냉정하며 때로는 가혹한 분으로 묘사한다. 우리가 그분의 초월성을 살펴보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아버지 됨의 진리를 더욱 많이 알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부드러운 아버지이심을 주목하는 반면, 그분의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는 간과한다. 이들은 친절하며 인격적이신 아버지께 대해 말하지만, 그분의 초월성을 만날 때의 전율은 없다. 이들은 하나님을 친근하고 장난을 좋아하는 친구 정도로 그려낸다. 이는 알고 부정확한 신학과 하나님에 대한 치우친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 III.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마 6:9-10): 3 가지 간구

A. **간구 #1 -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을 것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과 성품, 권위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합당하심에 적합한 반응이 드러질 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된다. 그분의 이름에 대한 묵상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될 때 경외감과 거룩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이 간구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이름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 계시될 것에 대한 기도이다.

*9...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 6:9)*

1.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와 다른 이들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당신의 위대하심을 보며, 이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풀어놓으셔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며, 그분의 이름을 농담이나 분노의 표현으로 공허하게 사용할 것을 거절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2. 이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과 마음, 예배에서 최고로 높임 받으실 것에 대한 기도이다. 그분의 영광스런 이름과 그분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어떤 것도 구하지 않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애할 수 있다.

B. **간구 #2 –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기도:**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기를 기도한다. 그분의 나라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을 말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분의 권능이 드러나는 곳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마 12:28).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 6:10)*

1. 이 나라는 이 시대에도 부분적으로 임하며, 예수님께 땅에 재림하실 때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 이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이다. 다시 말해 이미 여기에 있지만, 아직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음을 말한다 (마 3:1-2; 4:17, 23; 6:10, 33; 10:7; 12:28; 13:11; 16:18-19; 19:12; 막 4:11, 26; 9:1; 눅 16:16; 17:20-21; 18:16, 29-30; 행 14:22; 19:8; 20:25; 28:23, 30-31; 롬 14:17; 고전 4:20).
2.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로 섬겨나가야 한다. 에베소 교회의 오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섬겨나가되,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는 것 없이 섬겨나간 것이었다 (계 2:4). 주께서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구할 때 더 많이 주신다. 하나님을 향해 말하여, 이 간구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는 기경되며, 이것이야말로 그분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다.
3. 이 간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며,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세력을 주장하는 태도라던가, 우리 자신의 권위와 영향력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동역해 나가야 한다.

C. **간구 #3 –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도:** 이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따른 우리의 순종을 말한다. 그분의 뜻은 그분의 명령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으로 구성된다. 국가를 변화시키는 것에 헌신한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성결에는 헌신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예수님께 사로잡히며 그분께 순종하기보다, “변화를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사역에 더 사로잡혀 있다.

*10...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 6:10)*

**IV.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 (마 6:11-13): 세 가지 간구**

A. 다음의 3 가지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것들이다. **육신적**(일용할 양식), **관계적**(용서), 그리고 **영적인** 것(악에서 구하심)을 말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간구를 기도 가운데 가져올 것을 명령하셨다. 이 기도들은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의지함을 나타내준다. 어떤 이들은 이런 종류의 기도가 “이기적”이라고 잘못 결론을 내리며, 이로 인해 그들은 개인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를 간과한다.

- B. **간구 #4 –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이 간구는 우리의 매일의 공급과 보호, 인도하심을 향한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니며 (마 6:7-8), 우리의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한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재정을 벌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심으로 부분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 6:11)*

- C. **간구 #5 – 용서를 위한 기도:** 이 간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도와준다.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것에 대한 기도이며, 이는 또한 우리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준다.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 6:12)*

- D.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의롭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죄가 사해질 것에 대한 기도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구원해주실 것에 대한 기도가 아닌, 우리와 하나님과의 유대가 회복될 것에 대한 기도이다 (요 1 1:9). 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케 한다.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9)*

- E. 우리가 값 없이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의 증거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기쁘게 용서해주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싶어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었으니(역자주: 조건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십시오.” 이 진리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으시려 할 때 거절했으나, 예수님께서 그는 이미 깨끗하며,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발을 씻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3 장에 잘 나타나있다.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리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요 13:10)*

- F. **간구 #6 – 악에서 구해주실 것에 대한 기도:** 이 간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악으로 유혹하지 않으신다 (약 1:13).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 6:13)*

- G. 예수님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유혹을 피하고, 유혹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비유적 표현을 쓰셔서 하나의 간구를 두 가지로 표현하신다 –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 간구의 후반부는 전반부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역자주: 악으로부터 구해주심)을 긍정적으로 정의(역자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심)한다.

- H. 악마적으로 조성된 유혹이 우리를 향해 “폭풍”과 같이 밀려오는 **어떤 때**가 있다.

*13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표준새번역: 어느 때가 되기까지) 떠나니라 (눅 4:13)*

- I.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간청하실 때, 그분은 사도들을 이 기도로 부르고 계셨다 (마 6:13). 시험에 든다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일반적인 시험보다 더 강도 높은 어떤 것을 말한다. 이는 세 가지 요소, 즉 우리에게 대한 악마적인 활동이 증가하며, 우리의 정욕이 일어나며, 죄를 짓기에 좋은 환경이 함께 다가올 때 일어나는 특정한 “시험의 폭풍”을 말한다.

*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 26:41)*

*31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베드로)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눅 22:31-32)*

- J. 유혹이 있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유혹의 폭풍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한다. 유혹이 오기 이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보여준다.

- K. 다윗은 최악 된 상황이 일어나기 전인데도, 그 일로부터 구원해주실 것을 기도했다 (시 19:12-13)

*13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시 19:13)*

- L. 우리는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든든히 함으로 “조심할 수” 있다.

*12 그런즉 (기도 없이) 선 출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전 10:12-13)*

- M.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기도함으로” 마지막 때의 유혹의 덫에 대해 준비할 것에 대해 우리를 부르신다.

*3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덮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 이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승리하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눅 21:34-36)*